자동차 마이어의 수명을 줄이는 내쁜 운전 슬린물

평소 생활 습관에 따라 우리 몸의 건강이 좌우되듯 자동차 타이어의 수명도 운전자의 습관에 영향을 받는다. 평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운전 습관들이 사실은 타이어에 치명적일 수도 있다. 자동차 타이어의 수명을 줄이는 운전습관을 '금호타이어' (blog.kumhotire.co.kr)가소개했다.

■ 카레이서 뺨치는 격한 코너링과 급제동

타이어는 자동차의 주요 소모품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운전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타이어 마모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평소 빠른 속도의 운전과 격한 코너링을 자주 하는 차량이라면, 특히 타이어 마모 현상이 빨리 진행된다. 이뿐만 아니라 타이어가 한쪽만 마모되는 '편마모' 증상도 발생한다. 타이어가 한쪽만 마모되면 연료가 많이소모되고,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너무 격한 코너링은 자체해야 한다.

또한 급제동과 급출발도 잦은 코너링 못지않게 타이어의 수명을 줄이는 습관이다. 급제동, 급출발은 타이어에 큰 열을 발생시키고 많은 부담을 준다. 타이어 손상을 최대한 피하고 싶다면 급제동과 급출발은 자제해야 한다.



■ 과적

자동차를 오래, 효율적으로 타고 싶다면 차 내의 불필 요한 짐들을 덜어내야 한다. 자동차의 무게를 10% 줄이 면 연비는 약 3%, 가속 성능은 약 8%가 향상된다.

차 안에 무리하게 많은 짐들을 넣고 다니면 타이어에 무리가 가는 것은 당연하다. 타이어는 규격 별로 견딜 수 있는 하중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과적을 하 면 타이어 내구성에 손상을 입히게 되고, 결국 파손에 이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과적이 지속될 경우 타이어뿐만 아니라 차체와 핵심 부품에도 심한 부담을 준다. 이는 핸들링 저하, 운전 중 차축의 과손 등으로 이어져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화물차가 과적을 하면 화물 낙하로 인해 대형 교통 사고와 도로포장 훼손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타이어를 고를 때는 자동차에 맞는 하중 지수 (타이어가 공기압을 유지하면서 견딜 수 있는 최대 하 중)를 파악해야 한다. 물론, 타이어 하중 지수를 초과하 지 않는 정도로만 짐을 싣고 다니는 습관을 들이는 것 도 중요하다.



■ 타이어 공기압, 마모도 체크를 하지 않는 것

타이어 공기압, 마모도 체크는 타이어 수명 연장의 핵심이다.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하면 열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제동력이 떨어진다.

반면 공기압이 과도하면 타이어의 자연스러운 수축이 제한돼 승차감을 떨어뜨린다. 공기압이 부족하거나 과 하면, 펑크나 이상 마모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 는 것이다. 이 같은 타이어 조기 파손을 막기 위해서는 한 달에 1-2회 정도 타이어의 공기압을 확인해 적정 공기압을 유지시켜주어야 한다.

타이어 공기압 체크는 타이어가 완전히 식은 후에 실 시해야 한다. 자동차가 달리면서 타이어에 열이 발생하 면, 타이어 내부 공기압이 높아진다. 특히 더운 여름 날 씨에 운전을 할 경우에는 내부 공기압은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공기압 수치 확인은 자동차 주행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실시하는 게 정확하다. 공기압 측정기는 시중에 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값도 저렴하다.



타이어 공기압은 마모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내부 공기압이 부족하면 타이어 양 측면이 함께 마모되고, 공 기압이 과하면 중앙부가 마모된다. 그러므로 적정 공기 압이 아닌 상태로 계속 운전을 하다 보면 타이어가 파열 돼 자동차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만약 앞뒤 타이어와 좌우 타이어의 마모도에 차이가 있거나, 타이어 안과 밖의 마모도에 차이가 있다면 타이 어 위치을 앞뒤로 혹은 대각선 방향으로 교환해 준다.

타이어 교체는 트레드 홈의 깊이가 안전운전을 위한 마모한계 1.6mm에 도달하기 전에 하는 것이 좋다. 타이어를 교체할 때는 같은 사이즈로 교환해야 한다. 타이어 교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타이어 전문 정비소를 이용해야 한다. 할인매장 등에서 타이어를 구입한 경우라도 구입한 타이어를 가지고 정비소를 찾아 바르게 교체, 장착해야 한다.

